

# ‘기관지 마스크’ 용각산쿨로 미세먼지 걱정 끝!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mu$ g(마이크로그램)/m<sup>3</sup>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사망률은 1.1% 증가한다. 미세먼지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mu$ g/m<sup>3</sup> 증가하면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한다. 또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하면 염증반응을 일으켜 협심증과 뇌졸중 등 위험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용각산쿨'은 미세먼지로 자극받은 목의 지정작용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제품이다. 용각산쿨은 기존의 용각산에 길경 가루, 세네가, 행인, 감초 함량을 높이고 인삼과 아선약을 추가했다. 순수 생약 성분이 기관지 내부에 점액 분비량을 늘리고 섬모 운동을 도와 미세먼지로 자극받은 목을 진정시킨다. 용각산쿨의 주재료인 '길경'은 도라지의 약재명이다. 길경은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인 동시에 한방에서 폐와 기관지를 다스리는 데 널리 쓰여 온 한약재다.

목이 붓는 것을 치료하고, 기침을 멈추며 고름을 빼주는 약 효과가 있다. 이는 길경에 단백질·당질·지질·무기질·비타민 등의 성분 이외에 '사포닌' 성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포닌은 기관지에서 생성되는 '뮤신'(mucin)의 양을 늘려 가래 배출을 돕고 기관지 내벽을 보호한다. 용각산쿨은 일회용 스틱 포장의 과립형으로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해 뮤신 분비를 늘린다. 뮤신은 목에 있는 가래를 녹이고, 건조한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 기관지의 섬모 운동을 촉진한다. 섬모 운동이 활성화하면 가래 등 이물질들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다. 용각산쿨은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기 반드시 물 없이 복용해야 한다. 물과 함께 먹으면 희석될 뿐 아니라, 위(胃)로 바로 넘어가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⑦

